

마을 관광회관 무스빈

무스빈은 주로 다카사고시의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카사고시의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전시물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연 마을’으로 알려져 온 다카사고 지역이 부부 및 좋은 인연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왔다는 점과 1785년에 둑 전용의 마쓰에몬 범포가 탄생한 곳이라는 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명을 짜서 만든 마쓰에몬 범포의 발명이 일본 근대 어업의 발전과 내항해운의 성공에 어떻게 공헌했는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스빈의 건물은 170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당시에 맞은편 부두에서 해운 도매업을 운영하던 나카지마 가문의 사무소 겸 거처였습니다. 근대에는 우체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래된 금고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 등 당시의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건물의 역사적 특징을 보존하는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현지 특산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공예품과 제품을 소개하는 이벤트와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밖에는 지역 기업인 뱀부 팜(Bamboo Fam)이 제작한 대나무 벤치가 있어 거리를 산책하기 전에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